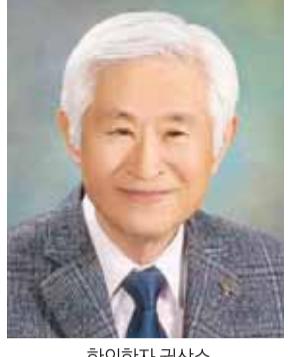


시연(施連) 칼럼

명대明代 경악전서景岳全書 64권을 출간한 한의학자 권삼수(權三壽, 36세)의 집념



한의학자 권삼수
（蜀）의 승상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어복포 전

투에서 팔진법(八陣法)을 써서 완승(完勝)을 거둔 전쟁에 비유되는 말이다. 그만큼 처방전은 환자의 귀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경주시 서면 내서로에서 40년째 한방의서(韓方醫書)를 파고드는 권삼수 족친(族親)의 하루는 고서(古書) 더미에 빠져 산다.

（金）나라와 （元）나라 시대의 잘못된 의학적 관행을 바로잡은 분이 경악(景岳) 장개빈(張介賓, 明 1563~1640, 조선(朝鮮) 수도 소흥에서 출생)이다. 우리나라 한의학(韓醫學)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경악(景岳)의 이론은 “인체에서 양(陽)은 사람이 아픔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기(生氣)인 반면 음(陰)은 죽음의 기운이다. 진화(真火) 진양(真陽) 진기(真氣) 원기(元氣)로 이어지는 현상을 생기(生氣)라고 칭한, 명나라 한의학(漢醫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경악(景岳)이 당시 명대(明代) 1638년 여간에 펴낸 한의학 경악전서(景岳全書) 64권의 분량은 엄청나다. 명나라 말기에 저술됐지만 명이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는 혼란기여서 출판되지 못했다. 사후 60년이 지나 외손자에 의해 세상에 나온 이후 50여 판이 속간되었을 만큼 중국과 우리나라 한의학(韓醫學)계의 보서(譜書)가 됐다.

더욱이 사람을 살리는 핵심 한의학이라 할 189가지 처방을 담은 팔문(八門) 64권은 100만 자에 이르러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를 뛰어넘었다.

이 경악전서(景岳全書)는 장개빈(張介賓)이 살았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다.

세 아들이 있었으나 의서를 읽을 만한 인재가 되지 못했다. 다행히 외손자였던 립일율(林日蔚)에 의해 장개빈(張介賓) 사후 60년이 지나 청나라 강희제 39년(1700)에 이르러서 광동포정사 노조(魯超)의 도움을 얻어 광주(廣州)에서 초판을 간행했다.

노본(魯本)으로 알려진 경악전서(景岳全書)다.

당시 립일율(林日蔚)은 소흥에서 광주까지 무려 1,488km나 떨어진 거리를 수레에 원고를 싣고 이동했으나 한 장의 원고도 없어지지 않고 밭간됐으며

“환자에게 내는 처방전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환자를 맞이하는 권삼수(權三壽, 79, 좌윤공파(左尹公派) 판사공(判事公, 36세) 족친(族親)은 처방전을 팔진(八陣)에 비유 한다. 팔진(八陣)이란 족

사라질 뻔했던 신의(神醫)의 저서가 세상에 드러나게 돼 못 생명을 건졌다.

경악(景岳) 장개빈(張介賓, 明 1563~1640, 소흥 회계 출신)은 의술(醫術)에 빠져들기 전부터 제자백가(諸子百家, 춘추전국시대 여러 학문을 통털어 부르는 말)는 물론 경사(經史)와 선철(先哲, 옛 어질고 학문에 밝은 사람, 철학인)의 학문, 천문, 역술, 음률까지 뛰어 한문학(漢文學) 수준이 깊었다.

아버지 장수봉(張守楨)으로부터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서였던 황제내경(黃帝內經)을 배우고 의학을 이해

라에서 송宋, 明 대의 의학에 이준했다.

황도연(黃道淵, 조선 후기의 의인 1807~1884)이 저술한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올려진 467가지 처방전에 경악전서 처방이 33개나 되는 것을 보고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년을 경악전서(景岳全書)에 매달려 오류를 바로잡고 접근하기 쉽게 번역한 신간을 이번에 세상에 내놨다. 사람들은 병약한 민형 위(魏)를 제외한 다섯 형제를 ‘당가오두唐家五寶’에 견주었다.

석주(石洲) 권필(權弼)은 조선(朝鮮) 1562~1631) 역시 당대의 문인 중봉(重峰) 조현(趙憲, 1544~1592)과 어우(於) 유동인(柳東寅, 1559~1623) 등과 교유할 정도였다. 백호(白湖) 윤유(尹鑄, 1617~1680)의 백호전서(白湖全書)에는 초루당(초루당) 권경(權卿)에

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이 일화는 백호 윤유가 권경(權卿)에게서 들었다고 하니 백호가 말하는 권경(權卿)은 송화공(宋禾公) 권인(權勤)의 손자 권경이 아닐까 한다. 일봉공(日峰公) 권경(權卿, 1600~1681)은 증조부 초루당(초루당)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이 일화는 백호 윤유가 권경(權卿)에게서 들었다고 하니 백호가 말하는 권경(權卿)은 송화공(宋禾公) 권인(權勤)의 손자 권경이 아닐까 한다. 일봉공(日峰公) 권경(權卿, 1600~1681)은 증조부 초루당(초루당)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이 일화는 백호 윤유가 권경(權卿)에게서 들었다고 하니 백호가 말하는 권경(權卿)은 송화공(宋禾公) 권인(權勤)의 손자 권경이 아닐까 한다. 일봉공(日峰公) 권경(權卿, 1600~1681)은 증조부 초루당(초루당)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이 일화는 백호 윤유가 권경(權卿)에게서 들었다고 하니 백호가 말하는 권경(權卿)은 송화공(宋禾公) 권인(權勤)의 손자 권경이 아닐까 한다. 일봉공(日峰公) 권경(權卿, 1600~1681)은 증조부 초루당(초루당)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

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동권씨족보에는 권경(權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호전서에 착오가 있는 들판에